

## 대구시, 하절기 신천·금호강 둔치 이용 시민 증가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하절기를 맞아 신천·금호강 수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휴식공간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천둔치 공원(가창교~금호강)은 현재 총 연장 12.4km, 공원조성 면적 418,000㎡에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등 23종 662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혹서기는 분수 8대를 가동하고 유지용수 12만톤을 방류하여 청량감을 제공하는 도시심공원이다. 금호강(화랑교~공랑교)은 연장 18.1km에 공원조성 면적이 124,000㎡이며, 시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등 17종 212점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점차 늘어나는 신천둔치 이용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개나리의 4종 5,115본, 참나리의 1종 17,312포기 등 수목과 자생식물들을 식재하였다. 또 시민들의 건강과 운동을 위한 편의·운동시설(평의자와의 15종 150점)을 보수·정비하고 조경지(잔디식재 1,000㎡)도 정비하였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신천둔치를 찾는 시민이 평일 1만명에서 주말·공휴일에는 3만5천명 정도, 금호강은 평일 5천명에서 주말·공휴일에는 1만명 정도가 찾고 있다며, 불쾌감과 불편을 주는 개 동반출입 및 오토바이 통행 금지, 수심이 깊은 유지보 부근 및 저수로 출입금지로 안전사고예방, 자기가 머물렀던 자리(쓰레기·오물)는 자율청소 시행, 공공시설인 화장실, 안내판 등 각종 시설물보호와 음주가무, 고성방가, 취사 행위 금지 등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광주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 점검 실시

광주시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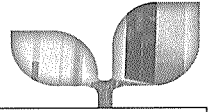
지난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단체, 산업체 환경기술인 등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수 비밀 또는 무단 방류 하는 행위 ▲부식·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방치 여부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광주YWCA, (사)시민생활환경회의, 환경보전협회, 새마을부녀회 등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계획이며, 단속위주 점검보다 효율적인 환경시설 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환경기술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산업체의 전문환경기술인이 함께 참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수 비밀 또는 무단방류”하거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등 생태계 파괴나,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26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장을 적발, 사용중지(고발병행)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충남도, '웰빙 해수욕장'을 위한 수질검사 실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갑봉)은 지난 6월부터 오는 8월 초순까지 「해수욕장 수질 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도내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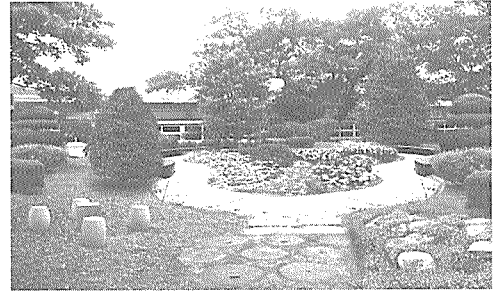
▲조사대상은 보령시의 대천·무창포, 태안군 꽃지·방포·삼봉·몽산포·만리포·학암포, 서천군 춘장대, 당진군의 난지도 해수욕장 등 모두 10개소이며 ▲조사지점은 해수욕장별로 중앙부와 양쪽 끝 3지점에서 수심 0.5~1.5m, 표층 아래 15cm 이내의 해수를 채수하여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전 및 개장기간 중에 1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 항목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암모니아성질소(NH3-N), 총인(T-P), 대장균군수(MPN/100ml) 등을 검사한다.

▲검사결과는 수질 오염농도에 따라 점수로 분류하여 합당한 점수가 4~8점은 「적합」, 9~12점은 「관리요망」, 13~16점은 「부적합」으로 판정하는데 ▲지난해에 실시한 해수욕장 수질검사 결과는 10개 해수욕장 전지점이 개장전, 개장중 모두 「적합」등급으로 해수욕 활동에 알맞은 수질로 조사 되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여름철 서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의 건강상 危害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 조성을 위하여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 초록동산에서 푸른 꿈나무 키워요



학교숲의 교육적·환경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교숲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아름다운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초등학교에 1억원(도비 5천만원, 군비5천만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사업은 학교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생태환경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자라는 청소년들이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 금년말 까지 추진되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솔동산 학습원 조성, 및 학교 상징숲 만들기 4개소(1,800㎡), 지압로 및 솔숲산책로 조성(4,568㎡), 팔각정자 및 목교설치(330㎡), 생태연못 조성 (500㎡) 그리고 수목식재등 건강증진을 위한 편익시설도 설치함으로써 다목적 용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학부모, 교사, 학생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참여하여 추진함으로써 열린학교의 변화된 모습과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교숲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학생들에게 자연생태 및 체험학습

장으로 활용은 물론 휴식공간이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생산일출봉과 혼인지를 연결하는 중간경유지로서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학교는 2005년도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가 실시하는 아름다운 학교숲 가꾸기 대회에 선정되어 2006년도부터 매년 1천만원씩 3년간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므로서 학교숲 가꾸기사업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관계자(교장 박두운)는 자연학습원 3개년 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사업이 마무리되면 훌륭한 야외교실이자, 생태학습장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도, 목재로 청정대체에너지 생산

목질계를 이용해 청정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엔지바이오발전소가 건설된다.

충청북도는 제천시 수산면에 목질계 Biomass의 가스화를 통해 생산된 합성가스를 전력 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를 만드는 지엔지바이오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바이오매스가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중 최대 24%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약 3%로 매우 낮은 편이며 높은 수거 및 운반비용을 이유로 대부분 매립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버려지는 목재 및 부유목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유치해 상당부분 목재를 재활용, 자원회합은 물론

청정 대체에너지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발전사업자인 (주)지엔지컨설턴트에프디아이는 발전소 건립을 위해 총8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6월달중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엔지바이오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5천 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이 생산되고 연 3억2천7백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발전소 유지관리 비용 2억원을 제외하면 연간 1억2천7백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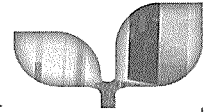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질계 Biomass의 가스화를 이용한 발전소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친환경 대체 에너지개발 및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광주시, '푸르고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 추진

광주시는 1,000만주 나무심기 일환으로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심녹화 사업과 연계하여 남구 금당산 115ha,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군암봉 165ha의 도시 주변산림에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숲에서 보다 질 높은 산림욕 및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산림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도시주변 산림수목을 우량숲으로 가꾸어 시민 휴식공간 활용 및 가치있는 수목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시는 지난 60년간의 노력으로 산림을 푸르게 녹화하는 데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꾸어 주지 않음으로써 너무 밀식되어 각종 재해의 발생우려가 높고, 생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숲으로 되



어있다. 이대로 놔둘 경우 숲이 밀식되어 나무들 서로간에 경쟁에 의해 우량한 숲이 될 수 없으며, 병해충 발생우려가 높아 숲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에 시에서는 첫째로 밀식된 산림을 솎아내어 숲에 적정 수의 나무를 배치하고, 둘째로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수목생장 및 하층식생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셋째로 고사목·병해충 목제거 작업을 통해 병해충 확산을 저지하는 등, 산림이 가진 휴양기능 및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 등 공익기능을 증진시켜 우량한 산림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등산로 주변 공한지를 활용 경관림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벤치,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의 산림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숲가꾸기사업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도심의 숲을 독립적인 비오톱(Biotop)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다양한 식생을 도입하여 도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녹지축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숲해설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산림욕 및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웰빙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숲가꾸기 실시하면 2배 이상 공기 정화 기능 향상된다.

### 울산시, 태화강 생태공원 시민편의시설 준공

울산시는 중구 명정천에서 태화강 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오산 우회 데크(나무다리) 설치사업이 지난 19일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태화강 생태공원내 시민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오산 우회 데크 설치사업은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회 데크(길이 94m, 폭 4m)와 진입광장(520㎡) 설치 등의 사업을 지난 4월 28일 착수했다.

그동안 명정천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산을 둘러서 진입해야 했지만 오산 우회 데크의 준공으로 시민들은 생태공원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화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산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오산 우회 데크 공사는 사유지인 오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허가 해 준 지금은 고인이 된 서강(경기도 고양시 일산)씨의 태화강과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공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구 지역 태화강 둔치 산책로의 우레탄 포장공사를 구 삼호교~명정천까지 1.6km를 지난 달 23일에 완공한데 이어 생태공원 구간 내 1.4km에 대한 우레탄 포장공사도 완료함으로써 총 3km의 우레탄 포장공사를 마쳤다.

이와함께 시는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화강 대숲 생태공원 산책로 1.4km에 대해 총 127개의 가로등과 에코폴리스비에 2개의 조명등을 설치하는 ‘태화강 산책로 가로등 설치사업’과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자연형호안 조성공사’를 지난달 준공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생태공원내 시민편의시설 공사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중구지역 주민의 산책 등 여가 활용은 물론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태화강을 보다 널리 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